

# 2월 2주차 Q&A — 고변동성 장세, 기회와 함정을 구분하는 법

· 정리 2026-05-13

## 차트로 예측하지 말고 변동성에 대비하라 — 탐욕에 레드팀, 공포에 펀더멘탈

박중훈의 경제로드맵 다섯 번째 Q&A — 본 회차는 Q&A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긴급 매크로로 편성했습니다. 이유는 최근 코스피·금값의 엄청난 변동폭 + 2026-02-05·06 외국인 현물 매도 5조 + 3.3조(한국 사상 최고·두 번째)의 시대적 의미.

강사가 짚는 핵심: **차트로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변동성에 대비하라**. M자(상승장 끝)·W자(하락장 끝)는 그래프가 완성되고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사후 패턴 — 미래 예측 도구로 쓰면 확증 편향에 빠져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.

## 코스피와 금값 변곡점 — M자와 W자

강사가 짚는 두 가지 그래프 패턴:

- **M자**: 상승장 끝물에 나타남 — 더블탑·트리플탑 · **W자**: 하락장 끝물에 나타남 — 더블바텀

다만 **핵심 경고**: 진행 중일 땐 M인지 W인지 누구도 모른다. \ "M자형 나오면 매도\"는 말도 안 되는 소리. 차트만 믿고 확증 편향(Confirmation Bias)을 갖게 되면 변동성 장세에서 전 재산 날릴 수 있다.

미래 예측이 아닌 **변동성 대응**을 위해서 M·W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는 게 강사의 정확한 전제.

## M자가 만들어지는 이유 — 탐욕과 시장 트랩

상승장 끝의 M자 메커니즘:

1. **첫 번째 봉우리** — 모두가 강력한 상승세에 취해 환호할 때 2. **중간 골짜기** — 스마트한/회의적 세력이 대규모 매도. 그런데 \ "나만 못 샀네\" 포도(FOMO) 개미가 빛 내서 대거 진입 3. **두 번째 봉우리** — 외국인(거대 은행)도 매도를 멈추고 승고르기. 전 고점 근처에서 개미들이 \ "가즈아\"를 외치며 대량 매수 → 거대 은행 두 번째 매도

물량이 너무 많으면 두 번이 아닌 세 번 매도 = **트리플 탑**. 항상 어떤 때 만들어지나? 개인들의 탐욕이 끝까지 갔을 때.

## 외국인 = 외국계 초거대 은행

\ "외국인\"은 단순 외국인인 아닌 **외국계 초거대 은행**. 자본력 만땅 + 한국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 + 감정 없음 + 코스피 만세 외치지 않음.

큰손이 한꺼번에 안 파는 이유 — 물량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팔면 주가 폭락해서 더 싼값에 매도해야 함. 그래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 — 아직 상승 여력 있을 때부터 매도 시작. 그래야 개미들이 진입해서 좀 더 먹을 게 있어 다시 주가가 끌어올려짐.

더 무서운 점 — **거대 은행은 포도 개미 물량을 추정할 수 있음**. 개인 유동성 포켓 탐색 + 주문 흐름 독점 파악 + AI까지 동원해 \ "어디까지 떨어뜨리면 개미들이 매도하고, 어디까지 올리면 다시 매수하는지\"를 정확히 파악.

## AI 알고리즘 — 트레이드의 80%

+2 **현재 미국 주식 매매의 80%가 알고리즘** — 그중 HFT(High-Frequency Trading) 단독으로 55% 차지. 글로벌 알고리즘 거래 시장은 2025 \$28.47B → 2026 \$32.77B. AI-머신러닝 통합으로 \ "기술적 우위가 곧 경쟁 우위\"로 진화 중. 강사가 짚는 \ "AI 알고리즘이 시장의 80%\"는 미국 정량으로 검증됨.

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AI인데, **인간의 상식·공포·탐욕에 사로잡혀 매매하면 항상 파동에서 가장 비쌀 때 사고 가장 쌀 때 파는 오판**을 한다는 게 강사의 정확한 진단.

## 차트쟁이의 함정 — 외국계 은행이 알고 있다

차트 설명에 흔히 나오는 \ "M자 오른쪽 어깨가 전 고점보다 낮아 하락장\" — 이걸 **외국계 거대 자본의 마음에 달려 있음**. 외국계 거대 은행이 이런 차트 분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— 오히려 \ "개미들 안심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두 번째 어깨를 살짝 더 높게\" 만들 수도 있다.

미국 나스닥·S&P 500은 외국계 거대 은행조차 마음대로 못 함 — 시장이 너무 큼. 하지만 코스피는 외국계 자본력 대비 작아서 **마음대로 쥐락펴락 가능**.

결론 — \ "중시 미래를 자신의 상상에 끼워 맞추지 말고 M이든 W든 변동성에 대응\"해야 한다.

## 2026-02-05·06 외국인 매도 — 사상 최고

2026-02-05·06 외국인 현물 매도:

| 날짜             | 매도 규모  | 한국 역사 순위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2026-02-05 (목) | 5조 원   | 사상 최고    |
| 2026-02-06 (금) | 3.3조 원 | 사상 두 번째  |
| 2주 누적          | ~15조 원 | —        |

\ "외국인들 한국 모르잖아\"라고 치부하기엔 물량이 너무 크다. \ "외국계 거대 은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량 매도할 리 없다\"가 강사 진단.

추가로 **선물은 미미하게 매도** — 양매도(현물+선물)가 아닌 현물 집중 매도는 \ "지수 누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장 팔고 떠나는 게 목표\"라는 신호. 양매도면 \ "주가 떨어뜨린 후 매수 → 끌어올림\" 패턴이지만 현물 집중은 진짜 떠나는 의지.

+4 강의 시점 이후 흐름은 더 본격화. **2026-02 전체 외국인 매도 19.9~21.1조 원 (약 \$14.8B) — 한국 역사상 월간 최고치**. 2026-02-27 단일일 매도 4.7조 원으로 또 신기록. 강사가 짚는 \ "단순 무시 X,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라\"의 정합 검증.

## 한국 매수 여력 약화

| 매수 여력         |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개인 빚투         | 사상 최대 — 추가 매수 여력 ↓           |
| 국민연금 한국 주식 비중 | 19%대 추정 (률 14.9%) — 개입 여력 소진 |

확률적 측면에서 **M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음**. 다만 \ "M자가 만들어져야 M자인 걸 안다\"는 강사 원칙대로 단정 X.

+1 강의 후 3개월 흐름은 \ "외국인 매도 + 한국 추가 상승\" 패턴이 동시 발현 — **정부가 2026 초 국민연금 국내 주식 한도 일시 중지 결정**으로 국민연금 운용 자금이 1,700조 원(\$1.25T) 돌파, 회수익률 15%+. 2026-05 KOSPI **장중 7,999 도달 후 7,643 마감 (5.66조 외국인 매도 = 역대 3번째)**. 강사가 짚는 \ "외국인이 매번 맞는 건 아닌\" 패턴이 본 회차 시점 후 3개월 동안 정확히 발현.

## 더블탑은 며칠이 아닌 몇 달도 갈 수 있다

사례별 더블탑 기간:

| 시기             | 기간     | 결말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00년 닷컴 버블    | 3개월 축제 | 1년 동안 1,059 → 500 급락    |
| 1994년          | 3개월 축제 | 1,138 → 600, 외환위기 98년까지 |
| 1997년 외국인 매도 후 | 8개월 상승 | 결국 대폭락 (반 토막 이하)        |

\ "외국인이 매번 맞는 건 아니지만 결국 코스피 하락으로 끝난다\"가 3번 모두의 결과. 외국인 대량 매도는 단순 무시 대신 **경고 신호로** 받아들일 필요. 더블탑은 \ "1~2주짜리\"가 아닌 **3개월 또는 8개월 축제**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.

## 한국 30년 5배 vs 미국 몇십 배

한국 코스피가 처음 1,000 넘는 게 1994년 — 이제 5,000이면 30년 동안 5배. 미국 주가 상승(몇십 배)에 비해 미약. \ "역물하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데\"라고 하지만 — **지난 30년 지속 상승은 미국 증시뿐**. 유럽·일본도 1998년 고점 근처에서 못 벗어남. 한국이 미국과 같이 몇십 배 올라야 한다는 주장은 무시해야 한다는 게 강사의 명확한 메시지.

## W자가 만들어지는 이유 — 공포와 시장 트랩

하락장 끝의 W자 메커니즘:

1. **1차 바닥** — 공포 극대화로 패닉 셀링. 알고리즘이 엄청난 속도로 내리꽂음 2. **중간 반등** — 공포에 판 개미들이 \ "괜히 팔았네\" 다시 진입 3. **2차 바닥** — 1차 바닥 버틴 개미들에게 실망 + 중간 반등 진입 개미들에게 재차 공포 4. **진짜 반등** — 거대 자본의 대규모 매수와 함께 본격 상승

여기서도 차트쟁이 함정 — \ "두 번째 하락이 작으면 상승\"이라는 분석을 외국계 거대 은행이 너무 잘 알고 있어 일부러 W자 두 번째 하락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함. 코스피·은 시장처럼 시장 크기 작은 곳에서 가능.

## 케빈 워시와 펀더멘탈 분석

최근 금값이 떨어진 건 케빈 워시 등장 영향. 많은 언론이 케빈 워시 성향 분석하지만 — 강사가 짚는 더 중요한 시각: **거시 경제 환경이 이미 정해져 있어 케빈 워시 선택지가 별로 없다**.

| 거시 환경            | 케빈 워시 작용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환경이 돈 풀 수밖에 없었다면 | 긴축 주장해도 결국 돈 풀음 |
| 환경이 긴축할 수밖에 없었다면 | 돈 풀고 싶어도 긴축     |

미국 빚을 미국인이 소화 못 하고 해외도 사주지 않음 → 결국 연준 매입. 케빈 워시가 단기적으로 금값 하락 원인이 될 수 있지만 **장기 거시 환경은 그 선택지를 막아놓은 상태** → 금값 하락 때 매집 유요.

\ "오히려 금에 가장 치명적인 건 경기 침체\" — 직장 잃은 사람들이 금 귀걸이·반지 다 팔게 되면 금값 하락 가능.

+3 **케빈 워시는 2026-01-30 트럼프 지명** — 즉시 금 16% / 은 39% 폭락(spot gold \$5,000 회복). 다만 강사가 짚는 \ "단기 vs 장기 펀더멘탈\" 분석대로 **Morgan Stanley는 \ "precious metals bull은 깨지지 않을 것\"이라 분석** — 거시 환경이 케빈 워시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강사 진단과 정합.

## 워런 버핏의 20칸 펀치 카드

\ "투자자는 평생 동안 딱 20번의 투자 기회만 가질 수 있는 20칸짜리 펀치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야 한다\" — 한 번 구멍 뚫으면 다시 같은 구멍 뚫는 게 의미 없다는 비유.

지금 이 주가 하락이 그 20번 중 한 번을 쓸 만한 절호의 기회인가? — **개인이 직접 판단해 볼 영역**.

## 본 회차의 결 — 탐욕에 레드팀, 공포에 펀더멘탈

| 상태        |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탐욕이 느껴질 때 | 레드팀 가동 — 외국인 매도가 중요한 레드팀. \ "왜 팔까?\" 진지하게 분석       |
| 공포가 느껴질 때 | 펀더멘탈 집중 — 영구적 변화인가 일시적 노이즈인가. 거시 환경이 개인 한 명으로 바뀌는가 |

외국인의 거시 행동도 주의 — 팔았던 물량의 10~20%는 언젠게 재매수 가능 (\ "외국인 돌아왔다\" 헤드라인은 비울 확률 높음). 현물 투매 + 선물 미매도면 \ "비싸게 팔고 나가는 게 목표\"라는 신호.

본 회차는 **분석·관찰·심리 대응** 톤이 압도적. 매수·매도 권유 0. 강의 disclaimer 정함.

**ONE LINE**

차트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세요. M자·W자는 그래프가 완성되고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사후 패턴입니다. 미래 예측이 아닌 변동성 대응 도구 — 탐욕이 느껴질 때 레드팀(외국인 매도 분석)을 가동하고, 공포가 느껴질 때 펀더멘탈(거시 환경)에 집중하세요. 워런 버핏의 20칸 펀치 카드 — 평생 딱 20번의 투자 기회 중 지금이 그 한 번일까요.

| † 차차 자료 보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 회차는 강의일(2026-02-09) 시점에서 약 3개월의 시간 경과 후 정리되며 다음 4개 외부 자료가 회차 메시지를 시간 연장·각도 확장·검증·반박·사례 후속의 4 패러다임으로 보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†1 <b>KOSPI 7,999 + NPS 1,700조원 + 외국인 5/12 5.66조 매도 (2026-05) — Seoul Economic Daily</b> (시간 연장)<br>강의 시점 이후 3개월 흐름. KOSPI 2026-05 장중 7,999 도달, NPS 1,700조원(\$1.25T) + 운용 수익률 15%+ (국내 주식 한도 일시 중지). 외국인 매도 5/12 5.66조원 = 역대 3번째 — 강사가 짚는 \ "외국인이 매번 맞는 건 아닌\" 패턴이 정확히 발현. \ "M자 두 번째 봉우리 만들어지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\"는 강사 진단 검증.       |
| †2 <b>미국 알고리즘 매매 80% / HFT 55% / 글로벌 시장 \$32.77B (2026) — QuantifiedStrategies</b> (각도 확장)<br>강의 \$ 5 \ "AI 알고리즘 시장 80%\" 명제의 정량 검증. 미국 주식 매매 80%가 알고리즘 + HFT 단독으로 55%. 글로벌 알고리즘 거래 시장 2025 \$28.47B → 2026 \$32.77B. AI-머신러닝 통합으로 \ "기술적 우위가 곧 경쟁 우위\"로 진화 중 — 강사가 짚는 \ "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AI\" 진단 정합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†3 <b>케빈 워시 2026-01-30 지명 + 금 16% / 은 39% 폭락 — Fortune / Morgan Stanley</b> (검증·반박)<br>강의 \$ 12 \ "케빈 워시 등장 → 금값 하락\" 진단의 정량 검증. 트럼프가 2026-01-30 케빈 워시를 Fed 의장 후보로 지명, 즉시 금 16% / 은 39% 폭락(spot gold \$5,000 회복). 다만 Morgan Stanley는 \ "precious metals bull은 깨지지 않을 것\"으로 분석 — 강사가 짚는 \ "장기 거시 환경이 케빈 워시 선택지를 제한\"한다는 진단과 정합. |
| †4 <b>2026-02 외국인 한국 매도 19.9~21.1조 원 (월간 사상 최고) — Bloomberg</b> (사례 후속)<br>강의 \$ 7 \ "2/5 5조 + 2/6 3.3조 외국인 매도, 사상 최고\" 진단의 사례 후속. 2026-02 전체 외국인 매도 19.9~21.1조 원 = 한국 역사상 월간 최고. 2/27 단일일 매도 4.7조 원으로 또 신기록. 강사가 짚는 \ "단순 무시 X,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라\"는 경고가 정량으로 본격화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본 회차 콘텐츠는 강사의 분석과 강의 본문에 명시된 권고에 한정하며, 매수·매도 권유 아님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수강생 본인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